

## 여수화양고 혁신학교 명품 교육도시로

지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  
 우수 프로그램 도입 혁신적인 변화를 계획



▲권오봉 여수시장

여수 화양고등학교가 전남 혁신학교 공모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혁신학교란 학생의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제공 교육에서 탈피하여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공교육 학교를 말한다. 즉 교사가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업을 자유롭게 편성하고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수업으로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수업방식인 것이다. 권오봉 여수 시장은 여수를 '교육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다. 과거에는 수산업이 활발했고 여수 국가산단이 있는 도시로서 예로부터 여수에서는 돈 자랑 하지 마라는 말이 있고 IMF시절에도 타 도시에 비해 비교적 어려움이 적었던 도시다. 또한 현재는 관광도시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부족한 한 가지가 교육이라고 자체 판단을 했다. 이에 권오봉 시장은 "연 116억이

라는 도내 가장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면서도 진학문제에 있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취임 직후부터 여수를 교육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 벗고 나섰다. 여수 화양고는 비평준화 일반 공립학교로 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 환경과 학력격차도 많아 어려움이 많았지만 2009년 교육부의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 도교육청 및 여수시의 교육 경비 지원과 도농복합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으로 2015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전국 일반고 역량강화 최우수학교에 선정, 2018학년에는 대학입시에서 농어촌 고등학교에서 최고의 진학률을 내는 등 우수학교로 인정받았다. 이번에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지자체 3억 원, 교육부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환경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전망이다. 화양고는 앞으로 우수교사를 초빙하고 서울 등 대도시 학교의 우수 프로그램 도입하여 비평준화 지역 공립형 일반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화양고 이남휴 교장은 "도농복합 기숙형 고등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겠다. 혁신학교의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하여 지역교육을 선도하고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찾아오는 신뢰받는 행복한 학교를 만

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혁신학교는 2009년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등장했다. 그 후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혁신학교가 생겨나면서 혁신학교는 '진보교육감'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명칭은 다르지만,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미래교육을 위한다는 본래 취지는 같다. 그러나 현실은 미래지향적인 혁신학교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이뤄지지 못하고 혁신학교들 가운데 두고 진보와 보수의 성향으로 덮어놓고 비난하는 정치의 장이 되기도 하여 앞으로 발전지, 진정해이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또한 혁신 학교에 대한 성과도 있지만 한계와 과제도 많다.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노력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협력하고 공감해야 혁신학교의

가치와 철학이 공감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혁신학교인 것이다. 여수시는 지난 해 3월 지역중학교 학부모 7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그해 4월 시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찬성 88%, 집중응답 필요성 80%이상 찬성 등 이미 혁신학교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권오봉 시장은 "지역에서 교육과 취업까지 책임지는 선순환 교육체계 구축을 민선7기 핵심공약으로 삼았다. 현재보다 한 단계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혁신학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양고 혁신학교 선정이 지역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희란 기자



## 여수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공사 시작

청소년들에게 바다의 꿈과 미래를 들려줄 해양체험의 장  
 여수세계박람회장에 해양탐험관·스포츠 체험시설 등 신축



여수시가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6년 국비를 확보한 뒤 5년 만에 첫 삽을 뜬 것이다. 여수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기공식(7일)에는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하여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전남행정부지사, 박람회재단이사장 등 300여명이 참여했고 이 자리에서 권오봉 시장은 건립시공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2014년부터 청소년해양교육원 유치에 추진했다. 끈질길 노력 끝에 2016년 국비를 확보했고, 2018년 실시계획을 완료했다. 교육원 유치부터 기공식까지 5년이 걸렸다. 청소년들의 해양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양문화 체험과 학습공간이 될 '청소년해양교육원'은 여수세계박람회장 4천710㎡ 부지에 2020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80억 원을 들

여 연면적 6천238㎡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된다. 교육원 1층에는 20m 5레인 수영장과 다이빙풀, 식당, 관리사무소 등이 들어서며, 2층에는 해양탐험관, 자연재난관과 해양스포츠 체험 및 교육시설이 자리하게 된다. 해양탐험관에서는 여수바다관, 해양 교육실, 선박 항해실을 만나 볼 수 있고, 자연재난관은 4D 가상현실영상관과 지진대피체험교육실이 위치해 재난대비 체험을 할 수 있다. 해양스포츠를 다양하게 접해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수영, 다이빙체험, 스쿠버다이빙, 응급처치 등 체험과 교육시설이 갖춰지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VR 서핑, 덕기요트 등 해양레포츠 VR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 3층과 4층에는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와 다목적대강당, 교육실 3개가 마련된다. 양근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청소년해양교육원이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바다의 꿈과 미래를 들려줄 해양체험의 장이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교육원이 개관하면 청소년 재난대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박람회장 민간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이 건립되면 여수세계박람회장 정신 계승과 함께 박람회장 프로그램과 연계해 미래 해양리더를 양성하는 민간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훈 기자



전남도의회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가 여수남해화학(주) 폐석고 매립장을 찾아 운영

## 전라남도의회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 여수 남해화학 폐석고 현장 점검 등 간담회 개최

54만여㎡ 약 2천만 톤 가량 폐석고, 주민들 건강 위협

폐석고가 쌓여있어 해양오염과 대기 중 비산에 의해 주민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 실제 지난해 8월 여수 나포동 해상 주변에 폐석고 침출수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백탄(바닷물이 부어 열게 흐려지는 상태) 현상이 발생해 주민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전남도의회와 유관기관에서 합동 현

지점검과 성분분석을 하는 등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2009년 5월 남해화학 폐석고장 관리부실로 인해 여수시가 남해화학을 광주지점 순천지점에 고발했고 그 협의는 2011년 9월 폐석고 매립장 면적 증가와 용량 증설 변경 때 설치검사와 사용 개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특별위원회 이광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남해화학 폐석고 매립장 운영현장을 점검하고 해양과 대기오염 발생 가능성과 오염재발 방지를 위해 남해화학이 부두에 설치한 차수막 등을 살펴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현지 활동은 광양만권오염원 조사와 현지활동 지원을 위해 유속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어민 등 전문자문단이 1시간 30여분 동안 함께 참여했다. 현지 활동 이후 약 2시간 동안 개최된 특별위원회와 자문단의 합동 간담회에서는 그 동안 자문위원들의 오염원 조사 활동상황을 공유하

고 근본적인 오염원 해결방안과 정책 대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특히,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자문단은 "석고가 일반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어 바다에 유입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확실하고 원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천만 톤 가량의 폐석고를 타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말하며 "남해화학의 폐석고 문제는 단시일에 해결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폐석고 처리와 보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방침

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는 광양만권의 해양보전과 수산자원 확대 그리고 대기보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다. 최희란 기자



▲남해화학 폐석고장 현장

당신의 좋은날

언제나 변함없는 아내의 사랑처럼

새마을금고가 늘 곁에 있습니다.

2017, 2018년도 출자배당금 4% 지급!

자동차세 신청 고객 모두에게 선물 증정!

노래교실 회원 모집 중~

※ 자세한 내용은 죽림본점으로 문의해주세요

• 죽림본점 T. 061-684-2511

• 덕양지점 T. 061-683-9005

• 돌출지점 T. 061-683-6717

여수한려새마을금고

회社: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중앙로 30-55(살일중학교 입)



# 주승용 국회부의장, 아시아물위원회 제3차 총회 및 이사회 참석차 출국

# “노인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소통간담회”

### 이용주 의원, 100세 인생, 노인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

### 주 부의장, “물 문제로 부터 자유로운 아시아가 되길 희망”

### 26개국 133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최대 물 분야 국제 협의체



▲주승용 부의장

13일, 국 회물관리연 구회와 국회 물포럼 회 장을 맡고 있는 주승용 국 회부의장 (여수출, 4 선)이 3월 14일부터 15 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물위원회(AWC) 제3차 총회 및 이사회’에 임종성 더불어 민주당 의원,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과 함께 참석했다. 아시아물위원회는 아시아지역의 물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위

해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수자원공 사가 주도하여 2016년 발족된 아 시아 최대 물 분야 국제 협의체이다. 회원국으로는 세계은행, 유엔식량 농업기구,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기구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26개국 133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 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물 관련 입법 활동 공유와 협력을 위한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체’ 발족 준비회의를 개최해 앞으로 물 분야 의원의외 협력 활성화와 국제 물 문제 해결에 실행력을 더할 전 망이다.

주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작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물관리기본 법」과 물 관리 일일화를 위한 「정부

조직법」 등 입법 경험을 공유했다. 대한민국은 「물관리기본법」과 「정부조직법」이 국의 본회의를 통 과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 정책 발진을 위한 ‘국회의 역 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주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체 발족준 비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체와 아시아물위원회 간 협 력이 더욱 강화되고 물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아시아가 되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이규원기자

이용주 국회의원(여수갑)은 12일 동여수노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20여명 의 어르신들과 함께 노인 복지정책 개 선을 위한 소통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화 사회의 문 제점을 되짚어보고 여수지역에 맞 는 노인 복지정책 및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올바른 노인 복지정책 방안을 함께 모색하 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단순한 형태의 노인일자리 등 기초적인 소 득으로는 어르신들이 100세 인생을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어 더욱 전문 적이고 높은 소득의 노인 일자리와 올바른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수시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용주 의원은 대안노

인회 여수시지회(최용권 지회장)와 공동주최로 간담회를 갖고 20여명 의 어르신들과 함께 노인 복지정책 확보 및 개선방안, 기타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용주 의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체계 정비와 퇴직금의 연 금화 촉진, 주택 및 농지연금 활성 화하는 등 노후소득 보안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서 검토해야 한 다”고 지적하고,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역에 맞는 올바른 노인 복 지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어르신들 의 사회적 역할 정립과 경제적, 사 회적, 정서적 자립 도모를 위한 정 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 원은 현재 대도시 중심의 교통복지



(지하철 무임승차)를 중·소 도시 차 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복지 및 농·어촌 지역 거주 어르신들에 게도 확대하여, 지역 간에 발생하 는 교통복지의 불평등 및 지역적

김대훈 기자

## 알림방

### 전남도 사회적응능력향상프로그램 운영시설 모집

올해는 2억 원의 예산, 전남지역 등록 발달장애 인(지적·자폐성)에게 자기결정프로그램, 리더십 교육, 취미활동프로그램 등 자조모임 운영 비용을 지원. 공간이 확보된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단체는 누구나 해당 시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단계 는 4월부터 사업을 수행한다.

### 수시협업·협당·연도 측정기 무료대여

대상자는 여수시에 주소를 둔 고철업, 당노병 환 자와 고위험군 주민이며, 측정기와 열당센서, 체열 칩, 측정기록지 등 소모품을 함께 제공. 대여기간은 협업, 협당 측정기는 3개월, 연도측정 기는 1개월이며, 대여 횟수는 연 1회. 여수시 보건 소(659-4183)나 동부도시보건지소(659-4382)에 필요 서류와 측정기 대여 여부를 확인. 다음으로 고철업, 당노병 등록·교육센터(보건소, 동부도시보건지소) 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대여 신청하면 된다.

### 여수시, 청년도전창업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좋은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을 가진 청년 예비 창업자에게 시제품개발, 홍보, 컨설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창업 지원사업’ 을 펼친다. 이번 사업의 수행기관인 전남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이번 달 12일부터 29일까지 사업 참여 자 10명(팀) 선발한다. 또 오는 4월부터 창업교육 과 멘토링,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1인당 창업지원 금 15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8 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공고일 로부터 2개월 이내 여수시로 전입이 가능한 만19 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 사업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 참여는 신청서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 업지원팀 이메일(bonggenius@ccci.kr)로 보내면 된

다. 신청서는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공고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http://ccci.creat ivekorea.or.kr/jonnam/) 공지사항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 팀(☎661-1937)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전남도,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29일까지 접수

신청 대상은 2019년 사업 기간(1~12월) 중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실천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아 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ha 이상 5ha 이하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 여수시, 한방난입사업 참여자 모집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한방 난입 프로그램과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22일까지 선착순 모집. 모집 인원은 프로그램 참여 30명, 치료비 지 원 12명이다. 프로그램은 여수시민에게 무료로 진 행하며, 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200%이하 난임부 부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남임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증,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 인서, 주민등록 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 소 모자보건실(659-4265)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자전거초보교실·신약자전거교실개강

여수시는 이번 교육을 자전거 초보교실과 산악 자전거교실(MTB)로 나누어 진행한다. 자전거 초보교실은 전남체육관에서 3월 5일부터 28일까지 여수시자전거연맹이, 4월 15일부터 28일 까지 여수YMCA두바퀴세상이 운영한다. 하반기 교 육은 10월에 열릴 계획이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자전거연맹 손준재 대표강사(010-5683-0717)나 여수YMCA두바퀴세상 김선미 대표강 사(010-9033-2634) 여수MTBschool 최용균 대표 (010-5608-6643)에게 문의하면 된다.

# 여수시, 저소득층 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전세자금 6000만 원까지 지원, 임대기간 최장 20년... 14일부터 20일까지 신청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저소득 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 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 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대상 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내 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 지주택공사나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책임대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2. 28.)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 른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 ▲만 65 세 전세임대 1순위 자격을 만족하 는 자다. 모집 호수는 총 25호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용이 7호 나머 지가 18호다. 지원한도액은 6000만 원이며, 주 택 전용면적은 85㎡(1인가구 60㎡ 이하)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 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비용에 대 한 연 1~2%의 월 임대료를 부담 한다.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이며,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며 주소지 읍면



▲여수시 무주택단지 전경

동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4089)에 문의하면 된다. 김대훈 기자

### 여수시의회, 3월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등 6건 심사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오는 20일 제191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 원 대표발의 조례안 5건과 규칙안 1건 등 총 6건을 최종 심사기로 결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 회는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의 출 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1건을 심사하고, 환경복지위원 회는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 례안, 여수시 대기 물환경보전법 규 위법소공 공개에 관한 조례 안, 여수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안 등 3건을 심사한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여수시 경관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다룬다.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의 회 의원 공무국의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의유성 등으로 부실한 국외연수 운영과 연수과정 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이 사회적 인 문제로 부각되자, 공무국의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정원을 민간위원 으로 구성하는 등 내실있는 연수제 도를 운영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 련 규칙을 전부개정하는 내용을 담 았다.

나현수, 민덕희 의원 등 2명이 조성을 목표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발의한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시민들이 시설물에 접근하거나 시설물 이용 시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 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 여수일보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7길 18, 1층

고문 박균상 / 회장 정민근 / 발행·편집인 한영래  
편집국장 최향란 / 대표 김명주  
대표전화: 061 654-8885  
기사제보·독자투고: 061 654-8885, 팩스: 070 8220-8808  
기사제보·배달안내: 061 654-8885, 광고 및 구독문의: 061 654-8885

\*등록번호: 전남 다 00343(주간) \*등록일: 2014년 7월 11일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여수지역 당선자

### 여수농업협동조합



**박영 (林英)**  
▶ 1960.09.25 (59세)  
▶ 전라남도 여수시 물산읍 월암길  
▶ 농업  
▶ 여수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농협중앙회(농협)  
▶ (한)여수농협 상무

### 여천농업협동조합



**박상근 (朴相根)**  
▶ 1950.10.04 (68세)  
▶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면 하느재길  
▶ 농업  
▶ 미기계  
▶ (한)농협중앙회 조합장  
▶ (한)농협중앙회 대의원

### 여수원예농업협동조합



**김용진 (金容鎭)**  
▶ 1958.07.01 (60세)  
▶ 전라남도 여수시 만호1길  
▶ 농업  
▶ 농협대학교원예과 졸업(대학원 1년수료)  
▶ (한)여수원예농협 이사  
▶ (한)여수원예농협 조합장

### 여수축산협동조합



**박계수 (朴桂洙)**  
▶ 1964.08.09 (54세)  
▶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면 내기길  
▶ 축산업  
▶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 졸업  
▶ (한)여수 축산지도관 명예회장  
▶ (한)여수 축산농협 조합장

### 여수수산업협동조합



**김상문 (金相文)**  
▶ 1954.05.21 (64세)  
▶ 전라남도 여수시 흥천중앙로  
▶ 수산업  
▶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원  
▶ 최고수산업정책 과정 6기 수료  
▶ (한)여수수협 상임이사

### 여수시산림조합



**양계승 (梁在承)**  
▶ 1950.01.06 (69세)  
▶ 전라남도 여수시 무성중앙로  
▶ 임업  
▶ 순천농고등전문학교 졸업(5년)  
▶ (한)여수시산림조합 감사  
▶ (한)여수시 산림과장

### 순흥농업협동조합



**강진형 (姜振暻)**  
▶ 1957.10.06 (61세)  
▶ 전라남도 여수시 물산읍 봉천길  
▶ 농업  
▶ 협동조합경영대학원 수료(1년)  
▶ (한)농협중앙회 조합장  
▶ (한)물산면 주민자치위원장

### 전남부수산업협동조합



**서광균 (徐光均)**  
▶ 1958.11.05 (60세)  
▶ 전라남도 여수시 물산면 목실길  
▶ 수산업  
▶ 여수대학교 수산학과 석사 졸업  
▶ (한)한국수산업대표

### 전남정지망수산업협동조합



**조선현 (曹善玄)**  
▶ 1959.03.11 (60세)  
▶ 전라남도 여수시 물산읍 화일암로  
▶ 수산업  
▶ 목포대학교 수산학과 졸업  
▶ 전(전)남정지망수협비서장(4회 역임)

### 제3·4구정수산업협동조합



**도연태 (鄧連泰)**  
▶ 1964.03.14 (55세)  
▶ 전라남도 여수시 정곡신길 3-4구  
▶ 함수기수협 정진호 전주  
▶ 원형대학 졸업  
▶ (한)정수협여조합협의회 대표이사

### 근대유망수산업협동조합



**김태 (金利泰)**  
▶ 1952.12.12 (66세)  
▶ 경상남도 사천시 통곡5길  
▶ 수산업  
▶ 미기계  
▶ (전)제15대근대유망수협조합장

### 사남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이강호 (李康浩)**  
▶ 1958.05.24 (60세)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신봉로  
▶ 수산업  
▶ 전남대학교 최고수산업정책 과정 수료(1년)  
▶ (한)사남해수어류양식수협비서장(4회 역임)  
▶ (한)신흥수협대표

###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



**김석완 (金石煥)**  
▶ 1950.05.26 (68세)  
▶ 전라남도 여수시 삼신면 죽촌1길  
▶ 수산업  
▶ 거문도고 졸업  
▶ (전)거문도수협 조합장



# 여수시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4월 1일부터 20일간 지난해 예산 적정집행 여부 종합적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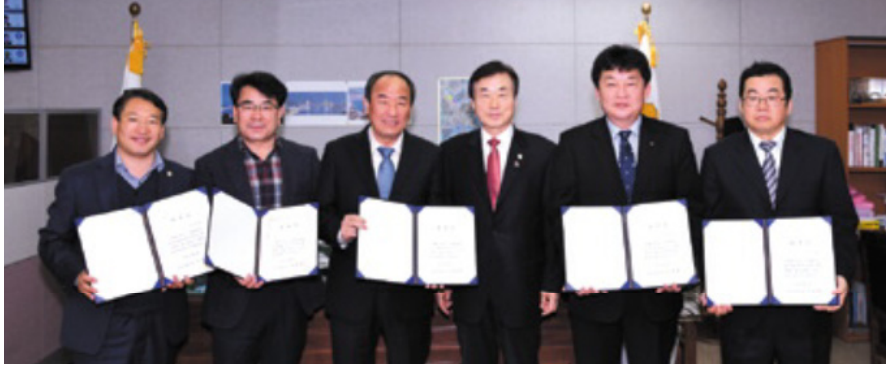
### 2018년도 여수시 예산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 등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제 190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여수시의회 의원인 문갑태 대표위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인 천상국·정민화 위원, 시민사회단체 활동으로 재무경험이 풍부한 김경만, 김대희 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활동하게 된다. 2018년도 여수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검사의 견해를 작성할 예정이다.

서완석 의장은 "결산은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찾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여 잘못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집행의 적정성과 예산낭비 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검사 종료 후 검사의견서를 시장에 제출하고 시장은 결산서를 검토한 뒤 결산승인을 의회에 신청하며, 의회에서는 6월

에 예정된 제193회 정례회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서 결산을 승인하게 된다.

이규원 기자

## 현장 활동

### 주동아지질, 현장주변 도로 600미터 정도의 거리 4년 동안 지속적인 정화 작업

주)동아지질은 지난 4년 동안 현장 주변을 꾸준히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동아지질 관계자는 그동안 동쪽 출입문만을 사용하다가 얼마전 서쪽 출입문을 함께 더 개장 하면서 쓰레기로 가득찬 이곳을 방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쓰레기를 줍고 있는 이준석 소장에게 왜 근무시간에 청소를 하고 있다고 물으니 "더러워서요. 그냥 깨끗하면 기분 좋잖아요"라고 말했다.

이준석 소장의 웃는 모습 속에 자유롭고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를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주)동아지질이 어떤 회사냐는 질문에 이소장은 "1971년 창립하여 오질 지질공사 한 길만을 걸어온 회사로 최고의 기술을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을 선사하는 기업, 즐거운 문화와 연대로 직원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근무 시간에 주변 청소하는 것을



직원들이 불만스러워 하지는 않냐는 질문에 동아지질 협력사인 주)지훈산업 이수한 대표는 "별써 4년이나 되어서 이제 모두들 주변이 어지러우면 정리해야하는 걸로 인식되어 있다"고 말하며 "더러우면 정리가 안되있으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도 이제 막 입사한 직원들은 불만이 있지 않겠냐는 기자의 슬쩍 떠보는 질문에 "모두들 5년 이상 된 직원들이다. 한 번 들어오면 좀처럼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밝혔다.

이때 청소하는 직원들의 모습 속에 자유롭고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최흥란 기자

## 여수시립박물관 유물 확보 위해 국립광주박물관과 업무협약

### 유물 장기대여, 박물관 개관·전시 지원, 지역박물관 교류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시립박물관 전시 유물 확보 등을 위해 국립광주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수시는 여수시립박물관 터로 웅천동 이순신공원이 결정되어 최근 전남도에 시립박물관 설립 사전 타당성



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온 상태다. 현재 여수시는 도에 신청서와 함께 전문가들의 자문을 보냈으며, 최종 협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오는 5월께 나올 전망이다.

여수 시립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6천300㎡ 규모의 시립박물관 건립계획을 세우고, 국비와 지방비 모두 280여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1년 완공한 뒤 이듬해 상반기 개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시정 상황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김승희 국립광주박물관장이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에 서명을 했다.

협약서에는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여수 출토유물 장기대여, 박물관 개관과 전시 지원, 지역박물관 교류 활성화 등이 담겼다.

국립광주박물관은 비파형 동검을 비롯한 여수 출토 유물 약 6000점을 소장하고 있다.

김승희 관장은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여수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여수시립박물관에 전시할 지역 유물을 확보하는 첫발을 뗐다"면서 "앞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수 출토유물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흥란 기자

## 봄꽃보다 아름다운 섬 7선에 전남 3곳

### 해수부, 봄철 가볼만한 섬에 여수 하화도·진도 관매도·신안 선도 선정 하화도 출렁다리 기암절벽 협곡사이 높이 65미터 길이 100미터 폭1.5미터

2019년 전라남도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봄에 가고 싶은, 꽃보다 아름다운 섬 7선'에 우리 여수지역 하화도가 뽑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겨울에 가고 싶은 섬' 10선 선정 이후, 연중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로 방문하기 좋은 섬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꽃보다 아름다운 섬 하화도! 하늘과 바다, 그리고 은빛 꽃, 꽃이다.

바다를 벗 삼아 섬을 한 바퀴도는 돌레길이다. 약 5km의 길가에는 꽃이 하나 가득이다. 꽃섬이라는 이름값을 하는지 봄날의 유채꽃에 앉아 있노라니 나풀거리는 나비가 뿔뿔하다.

여수 백야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40분정도 가면 화정면 하화리 하화도에 도착한다.

하화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할 때는 조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때라고 한다.

2008년 하화도의 야생화꽃섬 조성사업, 총 5km의 생태탐방로가 오밀조밀 생겨났다. 600m의 데크길, 구절초, 원추리 야생화를 모아 작고 예쁜 정원처럼 꾸며놓은 7.722m의 야생화단지 있다.

순남발생 구절초 공원이 있고 큰 산 전망대에서는 멀리 남도와 고흥의 팔영산이 보이고 깎뎀전망대, 나무데크길, 큰 굴절망대, 애립된 야생화 공원이 있다.



마을 앞 해안 길에서 큰 굴까지의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 걸기 좋다. 어린이나 짧은 산책 코스로도 좋다. 큰 굴은 하화도가 좁고 있는 최고의 비경이다. 깎아지른 절벽과 절벽 사이에 파도가 들이치고, 절벽 아래에는 커다란 동굴이 있다.

최근에 이곳 깎뎀전망대에 올라 서쪽 아래로 꽃섬 출렁다리가 생겼다. 큰굴이라는 기암절벽 협곡사이 높이 65미터 길이 100미터 폭1.5미터로 2017년 3월에 개통 되었다. 섬 전체를 둘러보는 데 걸리

는 시간은 두 세 시간 정도면 적당하다. 하화도를 만나러 가려면 여수에서 배를 타야 한다. 고속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여수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면 된다.

그리 먼 길이 아님에도 배편은 넉넉한 편이 못 된다. 여수여객터미널에서는 하루 두 편, 백야도 선착장에서는 하루 세 편 운행하는 게 전부다. 섬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출발하기 전에 꼭 운항 정보를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전남문화해설사 김영란

## 여수시 중앙동,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



여수시 중앙동이 지난 7일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이색적인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이순신광장 등 7곳에 설치했다.

설치 장소는 이순신광장과 해양미관 개선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이색적인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이순신광장 등 7곳에 설치했다.

분리수거함은 관광지와 주택가 특성에 맞게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하고 플라스틱, 캔, 유리병 등 3가지 품목을 색깔별로 분류했다. 또 주민과 관광객의 호감을 높이기 위해 기존 분리수거함과 차별되는 화사하고 다채로운 색을 칠해 제작했다.

특히 분리수거를 통해 바다를 살리는 재활용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뜻에서 수거함 양쪽 끝을 구멍투투 모양으로 형상화했다.

가로미화원과 공원관리원, 공공근로근무자 등은 청결유지와 관리, 수거 역할을 맡아 수거함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전의한 여수시의회 송재환 의원은 "이번 사업이 해양관광 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규원 기자

## 결혼정보회사 웨드

**웨드가 존재하는 이유**

더 이상 외로워 살지 마세요!! 가장 많은 남녀 회원이 선택한 웨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도 당신을 인도하여 가장 행복한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왜 웨드 일까요?**

- 유료회원수 전남 최대 부유로 당신과 어울리는 여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성공회원수 여수 최고의 성공률은 웨드의 자랑입니다.
- 역사의 규모 1998년 개원 이래 지난 20년간 이 지역 최대의 규모로 성장해 왔습니다.
- 전문적인 관리 다년간의 경험과 과학적인 매칭시스템으로 당신의 행복을 끝까지 책임지고 찾어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 고객의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국내결혼  
wed.co.kr

국제결혼  
wed.kr

등록번호-전남2008-023  
신고번호-전남2008-0003

☎ 061) 683-1000

꿈을 찾는 나비처럼  
당신의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 외눈박이 윤희숙 열사를 기억하다!

### 순국열사들의 희생이 우리나라의 평화, 세계의 평화 물결로...

삼일절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열사의 정신을 이어가자는 물결이 전국 각지에서 일렁거렸다.

10대인 나와 비슷한 또래들은 3.1절에 대한 지식이 교과서에서 배운 것 정도이고 사실 그동안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지내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번 삼일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희생된 사람들,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고통을 감수했던 선열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우리지역의 열사 윤희숙 열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사실 3.1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유관순 열사가 있다. 유관순 열사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앞장서서 일제에 항거하고 독립운동을 주도했으며 체포된 후 죽기직전까지도 나라를 위해 싸웠다. 그때 유관순 열사의 나이는 놀랍게도 16살이었다. 나는 나와 같은 나이 유관순 열사

가 대단하면서도 16살이면 아직은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한 나이일 텐데 조국을 사랑한다는 죄로 처참한 희생을 당했다니 한편으로는 애잔하기까지 했다.

유관순 열사는 100주년 기념으로 건국훈장을 서훈 받았고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었지만 우리 여수지역 출신인 독립운동가 윤희숙 열사를 아는 사람은 드물어서 안타까웠다. 윤희숙 열사는 1919년 3월10일 전라남도 광주의 장남을 이용하여 만세시위를 계획하고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였다.

당시 광주수피아여자학교 재학 중이던 윤희숙은 광주교 전변에서 수백명의 관중을 지휘하며 만세를 외쳤다. 유관순 열사와 같은 학생의 신분인 여학생 윤희숙은 팔이 잘리고 한쪽 눈을 잃는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도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윤희숙열사는 독립이 된 후에도



불구가 된 몸으로 "외눈박이 선생님, 외필이 선생님"이라 불리며 전도와 문명 퇴치운동을 계속하였다. 안타깝게도 윤희숙 열사는 1950년 9월 28일에 퇴각하던 인민군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은실 속 화초처럼 자란 요즘세대 우리는 상상도 못 할일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스스로 나서서 하셨으니 얼마나 위대한가!

윤희숙 열사를 비롯하여 희생된 모든 순국열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평화, 세계의 평화 물결로 이어져 국가, 종교, 문화의 벽을 넘어서길 바래본다. 김지용 학생기자(구봉중학교 3년)

# 한화케미칼(주) 여수공장 '사랑의 나눔 김장대축제'

배추김치 1,200포기, 갓 물김치 1,200kg 담아 독거노인 800세대 전달 예정

한화케미칼(주) 여수공장이 지원하고 여수시노인복지관이 주관한 '2019. 사랑나눔 김장대축제' 행사가 복지관 앞마당에서 3월27일 진행 될 예정이다. 한화케미칼(주) 임직원을 비롯하여 여수시노인복지관 직원, 여수시 사회복지과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 하게될 이번 행사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배추김치 1,200포기와 갓 물김치 1,200kg, 총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난 겨울에 담겨 먹고 있는 김치가 시어지고 맛이 없을 요즘이다. 이번 행사는 입맛없는 봄철에 신선한 햇김치를 나누는 사랑의 김치리는 점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느낄수 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좋은 재료를 선정하여 맛은 물론 영양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좋은 먹거리라는 점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진정성이 돋보이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를 지원한 한화케미칼(주) 여수공장은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김장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랑의 릴레이 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행사를 지원한 한화케미칼(주) 김형준 여수공장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목표로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가겠

다."고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진우 관장은 "지역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소망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통해 마련된 김장김치는 지역 내 독거노인세대와 조손가정 세대 등 지역 내 소외계층 총 8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대훈 기자

# 여수시 국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꿈나무 소원들어주기' 사업

### 초등학생 등 저소득 자녀 13세대 400만원 상당 입학용품 전달

여수시 국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오후림)에서는 지난 25일 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꿈나무 소원들어주기'사업으로 입학용품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꿈나무 소원들어주기 사업은 민관협력 사업으로 신학을 맞이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이 갖고 싶은 희망물품을 파악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의체에서는 13세대에 400만원 상당의 책가방과 운동화, 학용품등을 지원하였다.

희망물품을 전달받은 조순가정장(74세)은 "새 학기를 맞이하여 손자에게 책가방과 운동화를 못 사주어 미안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며 감사함을 표시했다. 오후림 위원장은 "앞으로도 여러



운 가운데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9년에도 활발한 활동과 다양한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저

소득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이영민 시민기자

### 어린이의 눈으로 보는 세상

####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

여문초 서태윤(4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상하고 수학을 잘하고 달리를 잘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힘든 사람도 도와주고 나눠주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고맙고 착하기 때문이고 비오는 날에도 우산이 없을 때 씌워주는 것도 착하다. 나는 자상하고 수학을 잘하고 달리를 잘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싶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다.

그건 비밀이다.

# 해성유소년스포츠클럽 태어로즈 태권용사

태권도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태권도인의 기상과 위엄 펼쳐



▲김종길 해성유소년스포츠클럽장

성남시청 광장에서는 여수태어로즈 태권용사들의 우렁차고 힘찬 합성이 울려 퍼졌다. 전국 곳곳에서 삼일절 100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행사 중에 하나이다.

태어로즈는 태권도와 영웅들이라는 합성어로 태권도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시범단이다.

관중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린 태권도인들이 시범을 통해 무도인의 자부심과 모범의식을 고취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세계월드 기네스 태권도 기록 보유자인 태어로즈 김종길 관장(해성유소년스포츠클럽)은 "사랑하는 우리 시범단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여 스스로 자랑스러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리길 바란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한편 해성 태어로즈 시범단은 캄보디아 해외 봉사로 태권시범을 다녀온 적이 있다.

김현아 시민기자

# 심각하다, 교통체증과 소음

해양관광 도시,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은?



## 시민기고

### 관광도시의 이면

여수 시민의 일원으로서 지적, 권혜적 조건과 역사 그리고 멋과 맛과 정을 내세울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있음에 무한한 행복감을 갖는다.

요즘 세대는 여행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새로운 활력을 갖는다.

그런 경이로운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참으로 축복이 넘치는 곳이다. 그런 축복된 곳에서 산다는 사실에 우리는 무한한 행복과 기쁨이다.

하지만, 무질서한 관광객들의 발걸음과 교통체증문제, 소음 그리고 관광객을 상대로 한 업종만이 이익을 챙기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문제점은 대책을 강구하여 보완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젠, 여수를 대표하는 낭만 포차와 낭만버스커 공연문화는 전국적으로 알려졌기에 관광객이 시작되는 이 때부터는 사전대책을 철저히 하여, 앞서 말한 문제로 인한 지역민의 불만을 사지 않았으면 한다.

특히, 지역민과 함께 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여 자발적인 기부문화로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는 여수로 한 걸음 더 성숙해 나갔으면 한다.

이탈리아 북부 아드리아 해안의 아름다운 도시 베네치아 주민들이 대규모 관광객 유입에 불만이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관광도시이기에 관광수입도 적지 않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탓에 임대료 및 물가가 상승하고 관광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업종과 상점들 그리고 주민들은 불편한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관광객들의 대거 유입을 통제하는 출입구까지 설치하면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베네치아 주민들을 위한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역사가 사라진 사회, 문화와 관광과 낭만이 도외시된 사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해양관광 도시로 발전되어 가기 위해선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수립, 실천으로 옮겨 지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해양관광 낭만의 도시 여수가 되길 염원한다.

최정규 시민기자

# 여수시 충무동, 어르신 사랑의 국밥나눔 행사



여수시 충무동(동장 이근철)은 지난 8일 주민센터에서 관내 어르신 100여 명을 모시고 사랑의 국밥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환경경제추방운동 호남본부(본부장 이형은)가 주관하고 LG화학 여수공장이 후원했다. 이형은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사랑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근철 충무동장은 "오늘 같은 소중한 자리를 자주 마련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존경을 전하셨다"고 말했다.



# 여수시 둔덕동, 봄맞이 꽃심기 펼쳐

여수시 둔덕동(동장 김명희)은 지난 12일 주민자치위원회, 노인회 등 관내 자생단체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꽃심기 행사를 했다. 동은 올해 지부리당 3개소 780㎡와 도로변 미이카 화분 등에 꽃밭을 조성·관리할 계획이다.

### 정훈 쌤의 재밌는 영어동화

Title : The Fox and the Stork 여우와 황새

The fox and the stork were very good friends. 여우와 황새는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One day the fox invited the stork to dinner. 여는 날, 여우는 황새를 저녁식사에 초대했어요.

The fox wanted to play a joke on his friend. 여우는 친구를 놀려주고 싶었어요.

So he put very delicious big fish on a very low plate. 그래서 그는 아주 맛있는 고기 수프를 내놓았어요.

As you all know, the stork has a very long long nose, and couldn't pick up her dinner from her plate.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황새는 아주 길고 큰 입을 갖고 있어서, 그 접시로는 저녁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To be continue... 2편에 계속 Today's English Expression

◎ play a joke : 놀려주다

◎ As you all know :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 pick up : 집다

주의해야할 영어발음 Fox Friend [frɛnd] 프랜드

정훈쌤의 발음 Tip : [f] 발음 같은 경우 한국말에 없는 발음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p] 발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발음은 신경 써서 발음해야 하는데 [f] 같은 경우 아랫입술과 윗니 사이에서 나오는 발음인데 입술을 무는 게 아니라, 살짝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발음해야 한다. 그리고 참고로 무성음, 즉 성대에서 울리면 안 된다. [f] 발음할 때 목젖에 손을 만져보면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철자 ph 발음도 [f] 소리가 난다.

▲캐리커스영어 원장 이정훈



#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가동 중지, 이번에는 동성코퍼레이션 화재

## 여수산단 안전결의문 낭독...진짜 낭독만 했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수산단 안전은 빨간불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제품 전문 기업인 동성코퍼레이션 공장에서 대형 화재(2일)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해 113㎡ 크기의 제조공장이 불에 탔으며 불길은 바로 옆 창고로 옮겨 붙으면서 내부 150㎡ 중 일부가 화재 피해를 입었다. 여수시는 지난달 15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장, 안전관리자, 유관기관장, 공무원 등 180여명이 권오봉 여수시장 주재로 2019년 여수산단 공장장 및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이때 여수산단 안전결의문을 낭독

하며 '안전한 여수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였으나 불과 보름만에 화재가 발생했다. 안전대책이라는 결의와 다짐이 무색해진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 여수 소방서의 신속한 현장 도착으로 비교적 빠른 1시간여 만에 진화되었지만 석유화학제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자칫하면 큰 피해를 입는 대형사고가 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소방서는 인조대리석 경화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기 과산화물이

누출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과거 동성코퍼레이션은 호성케맥스 사명 시절인 2000년 8월 반응기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 피해와 함께 주변 7개 공장을 가동 중지시키는 대형 사고를 낸 바 있다.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의 잦은 정전 가동중단에 이어 동성코퍼레이션의 화재 사고까지 여수산단의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여수산단 안전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밀감식을 통하여 공장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최현란기자

# “음주로 인한 해상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 복어독 의심 응급환자 이송과 술 먹고 음주 운항하다 해상 추락...

최근 들어 음주로 인한 해상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수지역 섬마을에서 복어를 먹고 마비 증상을 보인 응급환자와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바다에 빠진 선장을 민간어선이 구조 육지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57분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 거주

하는 A 모(39세, 남) 씨가 자택에서 복어국을 먹고 혀와 입천장 마비 증상을 보여, 삼산보건지소를 방문 진료 결과 복어독이 의심된다며 공중보건의가 여수해경에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인근 해역 경비함정을 급파하였으며, 현장에 도착 응급환자와 보호자를 편승 조치하고, 원격 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 환자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긴급이송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00시 56분경 광양시 급호동 관리부두 앞 해상에서 M 호(0.94톤, 승선원 1명, 연안복합) 선장 B 모(58세, 남) 씨가 임항 중 부표에 충돌 후 해상에 추락하였으나, 인근 조업 중인 다운호(1.13톤, 연안복합) 선장 전무용(33세, 남) 씨가 발견 구조하여 관안해경과출소에 인계, 대기 중인 119구급차 이용 광양 소재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아울러, M 호 선장 상대 음주측



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7%였으며, 해경에서는 선장 상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현란기자

# 국민의 목소리-호루라기

## 여기는 누구를 위한 주차지역인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단속지역으로 바꿔주길...



도원사거리 신동아 아파트 옆 편도 3차선 거리 출근시간에 3차선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빠져나가지 못해 출몰이 막혀있다. 과연 이곳이 주차 가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는가! 부영 사거리처럼 출퇴근 시간대는 단속지역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 복잡한 출근 시간에 황색 두 줄 불법주차 차량도 있다. 출퇴근 시간에 이곳에서 운전해 보라!! 행정을 하는 사람이 직접 이곳에서 출퇴근 시간에 운전해 보길 바란다!

신동아 아파트 옆으로 출퇴근하는 여수시민 김00

# 보호수만 보호하지 말고 사람도 보호해주시요~~~



진남시장 건너편 우체국 앞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해(약 5M) 도로가 2차선이 잠깐 1차선이 되었다가 보호수를 지나면 다시 2차선으로 바뀌는 곳. 1차선으로 운행 중이었는데 2차선으로 오던 버스가 갑자기 없어진 2차선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급하게 1차선,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나는 핸들을 꺾어 중앙선 침범!!! 십년감수!!!! 반대쪽에 오는 차가 없었으니 다행이지... 2차선이 없어지니 조심 서행하라는 표지판을 만들어주시길, 게다가 불법주차까지 한 술 더 뜨고 있고.... 우체국에서 진남시장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 보호수에 가려서 사람이 안보이니 매우 위험하다. 보호수를 보호하겠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사람도 보호해 주시요~~~

큰 사고 날 뻔한 신기동 시민 김00

# 리포 주차장이 된 학생보행통로



학교를 통학하는데 필요한 보행통로를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놨으나, 암체 시민들의 주차장이 되고 있어 논란이다. 시정동의 한 학교를 따라 만

들어진 통학로는 사라지고 주차된 차들만 즐비하다. 학교 개교이후 통학로엔 주차된 차들만 보인다. 한해랑기자

# 여수해경, 경비함정 팀워크 강화 훈련 실시한다

## 지휘통솔 및 팀워크 강화 훈련으로 상황대응 역량 강화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25일 여수 신항 해경 전용부두에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훈련단 주관으로 경비함정 팀워크 강화 훈련을 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경비함정 승조원 대폭 교체에 따라 개인별 임무를 숙지하고, 합동안전운항 등 자체사고 예방과 대규모 해양 인명사고 대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였다. 또한, 중형급(500톤) 1척, 소형정(100톤 이하) 5척 등 경찰관 및 의경 100여 명이 참가해 각종 상황에 대처한 해상종합 상황 문제 해결 훈련과, 불시 정전에 따른 기관종합 문제 해결 훈련 등이 중점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지휘관 대상 승조원 지휘통솔 및 팀워크 강화, 승조원의 정신자세 확립과 안전교육, 각종 장비 점검, 업무 지식 등 노하우를 공유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 훈련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지휘관의 지휘통솔 능력을 배양하고 팀원 간 신속한 대응과 대처능력을 강화했다. 이경두 경비구조과장은 “이번 팀워크 강화 훈련을 통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 발생에 합정장 이하 모든 승조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신속하게 대처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자동차매매상사**

본점 전남 여수시 서교1길 6 (서교동 658)  
TEL: 061)686-7301 FAX: 061)686-7303

인터넷 www.bscar.kr E-mail moonkyungil@naver.com

**KU 보성지동차**  
Bosung used car firm

**MOMO (주)모모렌터카 서교지점**  
MOMO Car Rental Co.,Ltd.

**B 보성테크** 네비게이션  
Bosung Tech 블랙박스

**S 시교주차장**  
Seo Gyo Parking lot

대표 문경일 010-9450-7529

BMW Mercedes Audi VW MANDO

분점 전남 여수시 봉산새철2길 1  
TEL: 061) 686-7302

계좌번호 농협 302-9450-7529-41 (예금주: 문경일)



# 힘찬 레이스로 시작하는 마라톤 환경정화까지 마무리되어야 국민축제로

### 아름다운 꽃길 섬진강변을 달리는 제 11회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성료

아름다운 꽃길 섬진강변을 달리는 제 11회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2일)가 성황리에 마치면서 쓰레기 정화작업뿐만 아니라 분리작업까지 깔끔하게 처리하여 완벽한 마라톤 대회로 거듭났다는 평판이다.

봉사자 80명은 여수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가 MBC에 후원하여 지원된 버스 두 대를 나눠 타고 여수망미경기장에서 새벽 6시30분 출발하여 개최식이 있기 전인 오전 8시 이전에 행사장에 미리 도착했다. 일반쓰레기 봉투와 재활용 봉투를 구분하여 각 팀 부스에 정리되어 있는 상태를 점검하고 쓰레기 분리작업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쓰레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점심 식사 후부터는 각 부스를 다니면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함께 쓰레기가 채워져 넘쳐나기 전에 미리 빈 봉지로 교체해주시기를 반복하여 주변이 지저분해 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쓰레기 모집장 쪽에서는 수거해 온 쓰레기 봉지를 다시 살펴서 플라스틱, 캔, 종이컵과 종이접시,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로 다시 철저한 분리 작업을 하였다.

이번 대회를 기획 책임진 유남도 기획 이실근 대표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환경봉사단체 김영주 대표와 많은 토론을 거듭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을 극복하고 완벽한 국민 마라톤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쓰레기분리 및



정화작업을 완벽하게 하지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또한 "오전 8시부터 마라톤대회가 끝난 오후 2시까지 6시간에 걸친 쓰레기 정화봉사는 마라톤 폴코스, 노고만류나 값지고 대단한 레이스다. 환경을 위하여 노력 봉사해 주신 사)ECO-PLUS21 봉사자 80명께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환경정화봉사에에는 여수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여수'걷기 좋은 길' 함께 걸어요 홍보를 위해 참여한 이주리과장과 전득현차장도 함께 봉사에 참여하여 주었다.

10km 레이스를 마치고 쓰레기 분리수거 봉사를 함께한 여수 여천동 강재현시의원은 "10km 달리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그래도 이렇게

분리작업을 하고 나니 뿌듯하다. 함께 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사)ECO-PLUS21 봉사자 80명께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는 다압면 신원 섬진강 둔지에서 전국 5천여 명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폴코스, 하프코스, 10km, 5km 4km부으로 레이스가 펼쳐졌다.

최환린기자

## 호미질은 왜 좋은가?

### 작물 뿌리도 사람처럼 산소를 호흡한다

#### [농사는 자연이다] <2>



하병연 박사  
(경상대학교 학술교수)

"콩밭 때는 아내야. 배적삼이 흠뻑젖는다". 주병선 가수의 철갑산 노래가사이다. 배적삼이 땀으로 흠뻑 젖도록 콩밭 때는 풍경

을 노래한 것인데 왜 이토록 힘든 노동을 감수하면서까지 호미질을 할까? 물론 최종 목표는 공수확량을 늘리는데 있겠지만 여기에 과학적인 요소가 숨어있다.

토양학에서는 토양 피각(Soil Crust)이라는 용어가 있다. 토양 피각 현상은 유기물이 부족한 토양에서 자주 일어나는 데 빗물이 토양에 계속 내리면 일부 토양 입자는 밀가루처럼 아주 잘게 깨져 고운 입자로 변한다.

비가 그치고 햇볕이 나면 토양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잘게 부수진 토양 입자들끼리 서로 뭉쳐 토양 표면은 빵 껍질 조각처럼 딱딱한 층을 만든다. 이것을 토양 피각(Soil Crust) 현상이라 부른다. 영어로 빵 껍질을 'Crust'라 한



▲박남훈

다. 쉽게 이해하려면 빵 안쪽은 부드럽지만 빵껍질은 딱딱한 층으로 덮여 있는 바게트 빵을 상상하면 된다.

토양 피각이 발생하면 대기 중에 있는 공기가 토양 속으로 침투하기 어렵고, 또한 각종 토양 가스들이 토양 바깥으로 배출되기 어렵다.

호미질은 이런 토양 피각을 파괴함으로써 대기와 토양간의 공기와 가스 교환을 순조롭게 해준다. 작물 뿌리는 사람처럼 산소를 호흡한다. 호흡하지 못하면 질식사해서 죽는다. 또한 뿌리 주변에 나쁜 토양 가스들이 많으면 뿌리

가 상해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한다. 호미질은 빵조각처럼 딱딱한 토양 피각을 파괴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해준다.

또한 호미질은 작물 뿌리 쪽으로 주변 토양을 옮겨줌으로써 복채기 효과가 있고 흩어져 있는 영양분을 뿌리 주변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 즉 호미질을 작물 뿌리 쪽으로 등그렇게 해줌으로써 배수 효과와 영양분 공급 효과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 작물이 잘 자란다.

그래서 호미질을 자주 하는 집의 작물은 건강하게 잘 자란다. 거기에는 잡초 제거 이외에 과학이 숨어 있고 아내들의 고단함이 녹아있다. 남정네들은 호미질을 오랫동안 할 수 없다. 아마 신체 구조와 끈기 부족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일평생 동안 땀방울에서 흠을 살피고 하루 종일 영당을 끌면서 빠른 손놀림을 하며 앞으로 나가는 이런 분들을 우리는 한 분야의 전문가로 존중해주어야 한다.

## 한해광의 <해양바라기>



▲서남해 한해광 센터장

페트병 500미리터가 아귀뱃속에서 발견되고, 거북이가 폐비를 먹는 등 바다에서의 해양쓰레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 연안역의 미세플라스틱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의 바다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섬과 무인도서의 경우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객이 급부상하고 있는 경도의 경우 해양쓰레기가 섬 전체를 에워쌓여 있는 실정이다. 쓰레기처리 주체도 모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봉착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을 던진다. 여수바다로 3월 말을 전후하여 해양쓰레기가 밀려온다. 그런데 올해는 좀더 일찍 밀려오고 있는 제보다.

여수시로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를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둘째, 어구어망 등 수중 부유 및 침적쓰레기 관리에 어민이 적극 참여를 유도해야한다. 셋째, 여수의 섬지역 해양쓰레기 표찰에 관한 올바른 데이터를 만들어야한다. 넷째,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유인책을 만들어야한다. 다섯째, 여수지역에 맞는 해양쓰레기 전문처리시설 및 집하장 등을 적재적소하게 배치해야한다.

현재 여수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러한 사안들을 대응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밀려오는 장

## 여수, 해양쓰레기 이렇게 대응하자.

###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여수연안으로 밀려와 올해는 좀 더 일찍 밀려오고 있다

소와 양이 올바르게 확인되지 않으면 올바른 처리 또한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 때문에 시의 적절하게 여수연안 해양쓰레기를 처리한다면 여수연안의 연안습지 등 보전 등에 파란불을 켤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연안에 방치되었던 오래된 해양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 뿐 아니라, 습지에 서식하는 생물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북서계절풍과 남동계절풍이 한창인 여름철 쿠로시오해류의 영향을 직접 받는 곳에는 외국기인 등 외부유입 해양쓰레기가 훨씬 많이 밀려와 표찰하기 때문이다. 하기에 여수는 남동계열의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어 중국, 일본, 타이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 외국기인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견된다. 외국기인 경우는 국제협력으로 해결해야한다. 이를 위해 여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라는 판단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 까 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고민해보았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여수시 자체에서 여수형 바다쓰레기해결 방법을 고

민해야한다는 것이다. 향후 2060년이면 바다에 고기보다 쓰레기가 더 많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쏟아지고 있다. 깨끗한 바다를 보고 싶다면 지금 새로운 여수 맞춤형 바다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지금부터 보이는 쓰레기 주워내고 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민이 바다를 버리면 바다도 어민을 버린다는 것을 직시하고 어민이 바다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모든 시민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해안전남도의 해양쓰레기의 제로와 운동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 영산강청, 겨울철 밀렵·밀거래 된 야생동물 83개체 적발

### 멸종 위기종 삿, 구렁이, 큰기러기 등 밀렵·밀거래행위 적발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안전화를 위한 불법엽구수거 실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18.11.1부터 겨울철에 성행하는 야생동물의 밀렵, 불법취급, 불법엽구 제작판매·설치행위 등을 집중단속하여 총 83개체를 적발 2명의 위반자를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18.11.1 ~ '19. 3월 현재 불법포획하거나 밀거래를 위해 보관중인 고라니, 너구리, 꿩, 비둘기, 살모사, 유혈목이 등 야생동물 총 83개체이며 그 중 삿, 구렁이, 큰기러기 등 멸종 위기종 II급에 해당하는 동물도 5개체나 포함되었다.

이유한 밀렵행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자체, 국립공원 등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및 신고포상금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8.11월부터 불법엽구 합동 102점, 창에 1점, 새그물 10m 등을 수거하였으며, 주민들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밀렵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자 신고 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21~9), 관할지자체 및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

김대훈 기자

2-3F  
큰사랑연합의원  
내과·외과·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가정의학과  
H.P 010-2597-1111  
4층 115㎡ 임대 (010-3821-1111)

# 큰사랑 연합의원

**진료과목**

- 내과 • 외과 • 정형외과
- 마취통증의학과 • 가정의학과

**진료시간**

- 평 일 08:30 ~ 18:30
- 토요일 08:00 ~ 13:00 (정심시간 12:30~14:00)
- 공휴일 및 일요일 휴무

**무 실** • 도수치료실 • 물리치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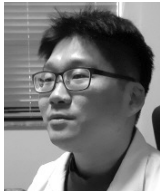
📍 여수시 쌍봉로 36-1, 2,3층  
(학동 신동아아파트 후문 옆)

☎ 061) 810-1600  
☎ 061) 810-1601



의료 칼럼

자연한의원이 알려주는 폐경기 여성관리



이준형 원장

허리, 무릎, 어깨 전문(자연한의원)

한의학적 개요로 볼 때 폐경은 49세를 전후하여 腎氣, 天癸, 任脈 축의 생리적 쇠퇴로 인해 장부의 기능상실이 초래되어 갱년기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사회, 문화적 요인, 여성의 성격에 따른 정신적 요인 등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그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생양 의학적 개요로는 폐경(menopause)은 난소기능의 정지후에 일어나는 월경의 영구적인 정지를 의미한다. 갱년기(dimaturic)란 폐경전과 폐경기 동안 그리고 폐경기 이후의 일정기간을 포함하는 폐경전후기를 의미한다. 이 시기는 여성의 생식능력이 감소되고 소실되는 전환 시기, 즉 생식기에서 비생식기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갱년기 여성은 여성 인구의 평균 30% 이상이며,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폐경의 시기로서 의학적으로 증상을 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의 시기로서 정신적 측면의 중요성 역시 크다.

폐경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안면 홍조와 야간 발한이 있다. 안면 홍조는 폐경 주변기 여성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다. 80%에서 보통 4-5년 동안 나타나며 마지막 생리주기가 끝나고 2년에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가 호전된다. 난소가 수술에 의해 제거되었던지 혹은 방사선 혹은 항암치료 등에 의해 난소 기능의 소실이 온 경우 더욱 심해진다. 증상은 갑자기 일어나며 보통 1-5분간 지속된다. 열감은 얼굴에서 시작되어 목을 통해 가슴까지 내려온다. 심한 경우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며 더 심한 경우 피부가 붉어지며 땀이 났다가 오히려 동반된다.

다음은 불면증으로 잠을 못자는 것은 폐경기의 흔한 증상이며 안면 홍조나 야간 발한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불면증은 잠이 드는 게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더 흔한 경우는 잠이 들고 몇 시간 후 너무 일찍 잠에서 깨는 경우이며 다시 잠들기 힘든 경우이다. 불면증은 사람을 피곤하고 예민하게 하며 만성적인 수면

장애는 기억력 감퇴와 판단 착오를 일으키며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체중의 증가,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

폐경기 여성관리를 위해서는 생활습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안면 홍조를 유발 가능한 환경 조건으로는 더운 집안 온도, 뜨거운 음료, 매운 음식, 감정적 스트레스, 흡연, 음주, 카페인 섭취, 약물 등이 있다.

복식호흡을 하면 도움이 되며 신체활동이 활발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서보다 열성 홍조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일이 적다. 하루에 30분 이상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섭취하면 좋은 식품으로는 콩이 있다. 콩에는 다량의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함유되어 있다.

미나리아재비과인 승마(升麻)는 안면홍조를 호전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며 일찍 사용할수록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외 비타민 E 섭취를 권한다.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좋고 잠자기 전에 과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 안면 홍조가 있다면 자기 전 따뜻한 목욕은 삼가는 게 좋다.

무엇보다도 기분변화를 주고 자기 개발을 하며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노동 칼럼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10% 까지 감액할 수 있는가



이유형

노동사

최근 청소년근로권익센터(노동부 위탁 하에 한국공인노동사회에서 운영되고 있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 또는 만 25세 이상 대학교 재학생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 권리구제와 노동인권 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에서의 퇴원은 사건을 진행하던 중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에서 10%를 감액할 수 있다"는 사업주의 항변을 들은 바 있다.

그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근로

계약기간을 1년 이상 설정했다고도 볼 수 없었다. 아울러 권리구제를 의뢰한 청소년의 업무가 단순노무직이라 할 수 있었다.

결론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고, 10% 감액대상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사업주를 설득하여 여성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전에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낸 적이 있다.

수습근로자 10% 감액규정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되어 있다. 어떤 법이든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수 없으며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을 악용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던 법이 개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최근에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감용규제의 안파까운 사람으로 인해 어렵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가 개정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될 것이다.

수습근로자 감액규정은 2년의 유의미한 개정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애초에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었는데 너무 당연시 이용 되다보니, (1) 2012.2.1.(시행)일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만 수습 3개월까지 10% 감액을 할 수 있게 개정하였다.

그런데 방학이나 휴학 중의 단기간 근로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즉, 1년 이상의 기간을 돌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시하여 수습 3개월 기간에 10%를 감액하는 이른바 법의 허점(loophole)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2) 2018.3.20.(이후 체결되는 근로계약부터 시행)일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

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다시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노동부고시 상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대분류 9 단순노무종사자(배달원, 주유원, 청소원, 경비원 등 단순노무직)가 해당된다.

이는 수습이라는 것이 실무나 관례에서 사용(시험삼아 사용)과 혼용되고 있지만, 수습의 본래 의미가 그 기간 동안의 직무능력을 키우는 것이기에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직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로자들 사업주든 수습기간 10% 감액규정(최저임금 100% 적용되는 단순노무종사자 규정)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또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분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동법을 알아두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 칼럼

은행 이자부터 알고 시작하자!



김충열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상무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돈을 모으는 방법의 기본은 "적금 또는 예금"이다. 하지만 이렇게 적금이냐 예금을 통한 자산운용을 선호하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저축"이라는 재테크방법이 더 이상 수익성이 없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다.

적금은 매월 불입액에 대해 금리가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3% 월 1백만원, 12개월 조건

으로 계산을 해보면 실질 이자는 1.62%밖에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자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총 이자액의 15.4%를 세금으로 공제하니 실질수령액은 164,970원, 즉 원금 1,200만원의 1.37%가 실질금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적금이라는 재테크방법은 2018년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인 1.5%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적금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시간이 지남수록 그 실질구매력이 저하되는 매우 불합리한 재테크의 방식이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적금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적금을 해야 한다는 정답이다. 대신 적금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금융상품은 "안전성", "수익성" 그리고 "환가성"의 세 가지 요소를 만족시킬수 있어

야 한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적금이라는 금융상품은 환가성 즉, 유동성이 가장 잘 내포되어 있는 금융상품인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 어떻게 돈이 필요하게 될지 모른다. 누구나 일정수준의 단기유동성 즉, 비상예비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비상예비자금은 단순히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기유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적금이라는 금융상품은 꼭 필요하며, 단기유동성은 보통 1년 단위로 준비되되 매년 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셔야 한다. 더불어 실질이자를 더 높게 수령하려면 세마을고의 비파세,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법률 칼럼

내용증명 활용 및 알아야 할 사항



한정윤

변호사

이 경우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답변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마치 내가 인정한 것으로 오인할 수가 있고 이는 나중에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답변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요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답변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내용증명에는 "언제까지 답을 달라"는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보통 내용증명 대신에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고 우기거나, 보지 못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통지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특히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등 계약관계를 해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해제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주어야 합니다. 해제나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나중에 법정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되는데, 상대방의 귀책으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해제,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내용증명을 보낼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과 관련한 내용증명의 경우 보냈는데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런 일이 반복된다 보면 결국 분쟁에 이르게 되는데요,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단순히 구두로만 경고하고 촉구한 것과 내용증명을 통해 명시적으로 경고하고 촉구한 것의 차이는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계약을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 여부를 발췌한 내용증

명의 내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하실 때에는 단순히 사실관계만 장황하게 나열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계약체결 경위', '상대방의 의무 및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 '이행을 촉구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사실' 등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침해중지 등과 관련한 내용증명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침해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로 인해 나에게 어떤 '손해(재산적, 정신적)'가 발생했는지, 이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지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특히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력파견형 구직자 및 구인업체 모집**

어제를 잊고 내일을 설계하라! 준비되셨습니까?

**시니어**  
**생산물 판매합니다**

- ◆천생연분 떡볶이 ◆은도봉 도시락
- ◆고소미 참기름 ◆향금 두부
- ◆콩s푸드 천생연분 김치
- ◆바다나눔 김부각 ◆여수 꽃병
- ◆12카페, 카페다시봄

**..... 구직자 .....**

- 구직의뢰**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이력서, 장애인신청서 작성
- 구직지원** - 1:1상담 · 구인업체 연결 · 취업 컨설팅
- 교육훈련** - 소양교육 · 맞춤형 취업교육
- 취업** - 사후관리

**.... 구인업체 ....**

- 어르신등록채취**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구직지원** - 1:1상담 · 구직자 연결 · 채용 컨설팅
- 채용** - 사후관리

모집지역: 구유원, 경미원, 생산직, 조경, 환경미화원, 주차장관리원 등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과 어르신을 채용하고자 하는 모든 곳 지금 전화주십시오, 바로 연결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여수시니어클럽**  
Yeosu community Senior Club

☎692-4555/9  
☎692-4556

모시는길 여수시연동2길 99  
연동기동마을 여수시니어클럽



# 행복에너지-Dream 에너지 바우처 연탄나눔

### 꽃샘추위가 시작하기 전에 따뜻한 온정을 사회적가치 실현 및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협력



▲강수진 본부장

한국동서발전(주) 호남화력본부가 행복에너지-Dream "연탄나눔 행사"를 시행하여 환경기 연탄이 떨어지는 시점에 사랑의 연탄나눔을 실시하였다. 이 기업은 매년 12월이면 연탄나눔 행사를 통해 여수지역 독거어르신 및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나기 일환으로 연탄전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3월에는 꽃샘추위가 시작하기 전 추운 봄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수지역 25가구에 연탄 200장씩을 전주연탄은행과 연계하여 전달하였다.

한국동서발전(주) 호남화력본부는 올해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연탄나눔 행사뿐만 아니라 김장나



눔, 밤차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수진 본부장은 "연탄이 필요한 취약가구에 꾸준한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앞

으로 한국동서발전(주) 호남화력본부는 사회적가치 실현 및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향란기자

## 여수 소방서 구급차 안에서 새 생명 탄생

### 월전항에서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차에서 분만

남면 대두라도에 사는 임산부 A(45)씨가 119구급차 안에서 귀한 새 생명을 탄생해 화제다.

여수소방서(서장김용호)에 따르면 3일 오전 4시7분경 남면 대두라도에 사는 임산부A(45)씨의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산모가 통증이 있고 현재 배로 월전항으로 가고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돌산 119안전센터구급대원은 즉시 월전항으로 출동하여 대기하였고, 오전4시25분경 월전항에 도착한 임산부를 여수제일병원으로 이

송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송도중 돌산대교인근에서 산모 A씨가 '양수가 터진 것 같다'고 말했고 구급대원은 출산이 임박했음을 인지하고침착하게 병원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며 구급차 내 분만준비를 실시했다. 병원도착 전 오전4시56분쯤 구급대원의 침착한 분만유도로 구급차에서 신생아가 출산하였고 구급대원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 후 산모를 진정시키며 병원에 대기 중인 의료진에게 산모



와 아이를 안전하게 인계했다.

자칫하면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구급대원의 침착한 대처와 판단 덕분에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산모와 아이

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산모와 아이가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며, 구급차 내에서 태어난 만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향란 기자

## 명량대첩 현장 '이순신 리더십 캠프' 인기

### 이순신 숨결 담은 다양한 역사교육 현장체험학습 진행

전라남도가 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불패 신화를 남긴 이순신과, 명량대첩을 이끈 전남도민의 희생·효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2015년부터 기획의 현장인 울돌목 일원에서 '명량' 이순신 리더십 캠프'를 운영,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순신 리더십 캠프는 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조선 수군을 재건해 불과 13척의 전선으로 수백 척의 왜선을 물리친 위대한 승리를 주제로 담은 리더십 특강과, 해설사와 함께하는 유적지 답사, 충무공 활쏘기 체험, 관공선 만들기, 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으로 3년 연속 선정돼 운영 하고 있다. 전남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문화유산인 명량대첩비, 전리우수영, 진도 벽파진전 참비, 여수 충민사, 진남관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 청소년에게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높이고, 지도력 있는 리더로 성장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청소년 대상 모집공고를 통해 참여기관 접수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를 바라는 문의가 전국에서 쇄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061-537-5265) 누



리집(www.mld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신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캠프 참여 학생들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배우고 자존감을 높이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이 올바른 마음과 자긍심을 가진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도는 또 이순신 리더십 캠프와 함께 명량대첩 대승을 기념하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전라도민의 호국·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해남우수영관광지와 진도녹진관광지 일원에서 명량대첩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9월 27~29일 열린다.

민대기 기자

## 여수, 미세먼지 측정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을까?

### 여수국가산단 인근에는 월내동 측정소뿐 중국사례인 택시를 이용한 측정소 운영도 고려했으면

연일 미세먼지로 전국이 답답한 가운데 우리 지역의 대기를 감시하는 곳을 알아보았다. 설치된 측정소 8개 중 여수국가산단 인근의 측정소는 1개가 유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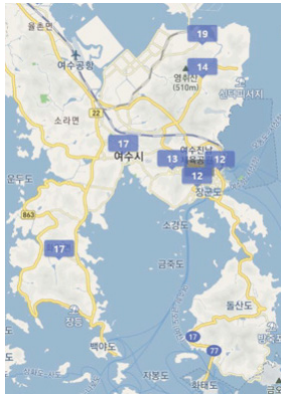
여수의 대기측정소는 거주인구 중심으로 덕충동, 문수동, 삼일동, 서강동, 여천동(여수), 월내동, 울촌면, 화양면 등 8개로 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어코리아' (<http://www.airkorea.or.kr>)에 접속하면 누구나 공개된 관련정보를 알 수 있다. 각 측정소에서는 아산화황가스(SO<sub>2</sub>), 일산화탄소(CO), 오존(O<sub>3</sub>), 이산화질소(NO<sub>2</sub>),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고 있으며, 문수동 측정소는 초미세먼지는 측정하지 않고 있다.

이 중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위험지라 할 수 있는 여수국가산단 인근에는 월내동 측정소뿐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여수시 '환경모니터링봉사

단체 사)ECO-PLUS21'와 같은 시민사회에서 여수국가산단전망대(화치동 소재)등 거주지역과 산단의 경계점에 대기측정소 설치를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거주지 중심으로 측정소가 있지만 한 지역에 1개뿐이며 설치장소 또한 옥상 등에 위치에 있어 실생활에서 느끼는 먼지의 양과 스마트폰 예보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측정값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택시에 측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KT에서 개발한 '에어맵 코리아' 앱 등에서는 사실상 운영되는 측정소를 운영하여 보다 실시간 정확한 대기정보를 얻고 있지만 확인결과 아쉽게도 이곳에서도 우리지역 대기상태정보를 받는 측정소는 이 8개가 유일했다.



▲미세먼지 측정소의 위치를 지도로 알 수 있는 사이트 (다스트필.dustfeel.com)

한편 시민단체에서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능기부환경모니터링봉사단체 사)ECO-PLUS21은 정기적으로 여수국가산단에서 악취검사, 미세먼지측정, 공기포집활동 등 시민들과 함께 여수시 환경오염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영선기자

## 여수시 민선 7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국자치단체 1위 '대통령 표창' 수상

### 정부청사서 대통령표창,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 받아 304개 기관을 대상 1년 동안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최우수 평가받아



여수시 민원서비스가 전국 자치단체 1위로 나타났다. 시(시장 권오봉)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과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광역시도, 전국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하며 진행됐다.

여수시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중 법정민원, 민원실 환경, 국민

신문고와 고충민원 처리 수준 등 전 분야에 걸쳐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회적 약자 배려 점용 창구'와 '화요 야간 행복민원실' 운영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여수시 민선 7기는 관광, 소통, 혁신 등 45개 부문에서 이미 대통령 상을 수상하며 행정서비스의 높은 수준을 입증받았바 있다. 특히 여수시의 관광정책은 지방관광정책의 롤모델이 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중심 시대를 맞아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더 나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시장은 "여수시민들의 성원과 2300여 공직자의 열정 덕분에다. 여수시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향란 기자

철저한 현장관리, 안전관리 및 경제적인 시공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시공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 주식회사 미주기업

대표 김성은

건설자재임대

비계설치공사

Tel. 691-7890, 682-7890

H-P. 010-3644-5859 Fax. 691-7896

여수시 조산로 233-18(덕양리 436-22)(소라면)



우동식의 <시 읽어주는 남자>

백묵련

저 참한 여인네는 왜 소복을 반쯤 벗고 속치마를 휘날리고 난리야



우동식 시인, 시낭송가

근데 저 햇살은 왜 자꾸 몸을 더듬고 열을 울리고 지랄이야
바람 난 봄이 미쳤나
나는 왜 또 몸이 근질근질 지랄맹맹이야
천형이야

/ 詩詩한 이야기 /

손을 모아 기도하는 듯 소복소복 담았다가, 하얀 꽃잎을 활짝 펼치는...

여수시 삼암동에는 진달래 군락지인 명산 영취산이 있고 그 아래는 삼암초등학교 교정과 삼암교회가 나란히 앉았다. 필자는 그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삼암교회 앞뜰에 있는 목련 나무에서 붓꽃하게 기도하는 손 같은 꽃봉오리가 솟는 것을 몇 일전 보았다.

하늘중궐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모델들이 모델쇼를 하는 것 같았다. 그 모델쇼는 도도했고 강렬했으며 꽃볼로 타오르는 듯 뜨거웠다.

나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서 그 의식을 담았고 멀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퍼 날랐다. 그 여인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교회앞마당 뜰에 깔려 있는 목련꽃들을 보게 되었다.

이곳의 목련은 다른 목련이 다 지고 나면 늦게 서야 피고는 어느 목련보다 허느적 거리는 것 같다. 학교 교장선생님은 그 목련을 한참이나 검색하시더니 백묵련이라 하셨다.

봄비림이 살랑거리는 오후, 운동장 끝 팔각정에서 교장선생님과 목련차를 나누어 마시면서 고목 같은 목련나무 곁가지에서 흐드러지게 핀 목련꽃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마치 하얀 소복을 입은 참한 여인네로 보였다.

그 여인은 속치마를 휘날리고, 햇살은 몸을 더듬거리고, 바람은 자꾸 하얀 저고리를 치켜 울리고 지랄 난리야. 봄비림이 분다. 지랄맹맹 몸이 근질근질하다 천형이야.

“오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희고 순결한 그대 모습 봄에 온 가인과 같고 추운 겨울을 헤치고 온 봄 길잡이 목련화는 새 시대의 선구자야 배달의 열이로다”

“하얀 목련이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봄비 내린 거리마다 슬픈 그대 뒷모습 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우리 따스한 기억들 언제까지나 내 사랑이여라 내 사랑이여라 떠난 봄처럼 다시 목련은 피어나고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

우리는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하여 세계평화의 진정한 봄을 기대 했다. 그러나 봄은 왔지만 아직 봄은 아니다.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지고 떠난 봄처럼 다시 봄은 오고 내 사랑 목련은 시대의 선구자로 피어 날 것이다.

여수 석보는 평지에 축조된 방형의 성곽시설... 해안지역의 관방 유적으로 이순신 관련 관광자원 활용도 높다



난중일기에 나오는 여수석보-사적 제 523호 (중)

- 민대기 문화재학박사 -

난중일기 중에서... 임진 4월 18일(정미) 아침에 흐림(지역에 순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병방이 석보창에 군사를 인솔하고 오지 않으므로 불잡아 가두었다).

壬辰 四月 十八日 丁未 朝陰 (夕 順天領軍兵勇 留在石堡倉 不爲領寸 故致致因禁)

병신10월 5일(무진) 흐림(남양 아저씨가 집안에 제사가 있어서 일찍 부르기에 다녀왔다. 남해현령(박대남)과 함께 이야기 했다. 비 올 징후가 많다. 순천부사(배응경)는 석보창에서 잤다).

丙申 十月 五日 戊辰 陰 (南陽 叔主大祭早招 故往來 與南海話 多有雨徵 順天首石堡倉)

여수석보는 당시 널리 축조되었던 산지나 평산지역에 마련한 성곽과 달리 평지에 마련된 방형의 소규모형태의 석보로 출발하였다. 남북은 178m, 서벽은 171m, 북벽 186m, 동벽은 168m 내외로 성벽 전체 둘레가 703m 내외이다.

남벽은 남북중앙의 추정 문지를 중심으로 동서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축조된 성벽으로 남문지의 동측 약15m 지점에 치(雉)&#160;또는 적대(敵臺)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이런 치는 평지성에 있어서 각 방면에 성벽에 2~3개 정도는 마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한 곳만 보이고 있으며, 성



<고지도에 나오는 여수석보>

벽의 보존 상태는 비교적 다른 방향의 성벽보다 양호한 편이다.

동벽은 남북방향에서 약10°정도 동남쪽으로 기울어진 직선형의 성벽으로, 현재는 성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벽의 바깥쪽에 마련된 대로를 따라 동문 쪽으로 접근하게 되어 있다. 석보가 활용되고 있었던 시기에도 동문의 활용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동벽은 비교적 유구가 상대적으로 잘 남아 있고, 동벽중앙에 동문지가 마련되어 있지만, 동벽 북쪽지역

은 민가가 있었던 곳으로 성벽의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북벽은 다른 성벽에 비해 다소 길다. 북벽의부는 성벽가까이까지 농으로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의 지대석(地臺石)까지 노출되는 등 성벽의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

서벽은 다른 방향의 성벽보다 보존상태가 상대적으로 나쁜 상태이며, 성벽의 중심지에 추정되는 서문지의 위치도 정확하지 않은 곳이다. 서벽의 남쪽구간은 그

간 과수원으로, 북쪽은 논으로 이용되었는데, 이로 인해 성벽가까이로 관개수로가 있고 서남쪽의 성벽유구는 성벽의 뒤채움 돌만 남아 있는 정도로 훼손정도가 심한 편이다.

여수석보의 성문은 남문지와 동문지 등이 확인되었으나, 서문지로 추정되는 곳에 대한 정확한 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수석보는 소규모의 석보로 출발한 성곽이기 때문에 성문을 각 방향마다 모두 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며, 북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남문지는 남북중심지역에 마련되어 있는데, 폭4.7m 길이 8.7m 내외로 문루(門廡)는 성벽의부에 농으로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의 지대석(地臺石)까지 노출되는 등 성벽의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

(다음호 계속)

송정현 미용장의 <머리카락이야기>-2

부스스하여 슬그머니 일어나는 머릿결... '맞춤 펌'으로 정리

헤어스타일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예를 들면 컷트에는 레이저컷, 스트로크 컷, 머쉬룸 컷, 투블럭 컷, 등이며 펌에는 셋팅 펌, 디지털 펌, 아이롱 펌, 무즈 펌, 히피 펌, C컬 펌, S컬 펌, 클램 펌 등이 있다.



▲맞춤펌 전 ▲맞춤펌 후

컷 기법이나 컷 형태, 펌 사용 기구(무드)나 컬 형태로 이름을 짓는다.

리렌트 컷처럼 1930년대 런던의 리렌트가의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세계적으로 유명 해져서 유행되어 전해지기도 하고, 솜사탕처럼 폭신한 느낌이어서 솜사탕 펌이란 이름이 붙고 러블리 펌은 사랑스럽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지기도 한다.

“짓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다. 그중 “머릿속으로 생각해 내어 만든다. 창작하다.”가 있다.

그렇다면 헤어스타일의 이름을 짓고 탄생시키는 미용사는 각 헤어스타일의 엄마 같은 존재인 것이다.

연예인 헤어타일을 검색해서 찾아오거나 컷 이름이나 펌 이름을 검색해서 찾아오는 고객이 있다. 문제는 고객이 요구하는 컷이나 펌이 디자이너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간혹 이름만 같은 다른 펌들이 비밀비 재하기에 제대로 된 소품을 위해서는 사진을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때

로는 사진 속의 스타일이 고객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거나 고객이 가지고 있는 모량이나 모질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에 고객에게 어울릴 헤어스타일을 제안하고 맞춤형 주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사진 속 고객님은 미평동에 거주하시는 주부다. 약간의 곱슬기가 있어 일반 펌을 하면 부스스해져서 정리가 잘되지 않는 모질이다. 해서 큐티클 방향으로 펌을 하는 아이롱으로 머릿결 정리를 하고 컬을 만들었다.

이 작품을 “맞춤 펌”이라고 부르고 싶다. 고객의 여러가지 조건에 맞서서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펌 기법을 사용했다. 또는 곱슬기가 다러지므로 웨이브 정돈이 잘 되고 유지력이 길다는 장점이 있다.

친구들과 함께한 대마도 여행기

대마도에서 만난 조선의 덕혜옹주

과거 일본에서도 본토 땅인지 10%밖에 몰랐다는, 버려진 땅이었다는 대마도, 일본어로 쓰시마섬에 1박2일 일정의 여행을 다녀왔다. 일본의 어이없는 독도영토 주장에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일본전체도 우리 땅’ 외쳐보았던 다섯 명의 친구들과 함께 간 여행이다.



☆님의 향 ☆ 애절한 향기 몸에 베인 여인아.

그대가 뜰에서 나서니 들꽃이 고개를 숙이네. 들향이 좋고 들꽃이 좋다 한들 세상에 묻힌님의 향보다 좋으리. 천지에 님의 향애뜻이 묻고 나서니 만생만물이 활짝 피고 화답하듯 웃구려.

임진왜란 출항지 대마도에 도착하자, 날씨가 좋을 때는 부산이 한눈에 보인다 한국 정장대에서 조선인 역관을 추모하는 비석 앞에서 애담을 마음으로 우리 땅을 바라보았다.

대마도는 계절성 집중호우 때문에 우산은 필수고, 울릉도의 10배, 거제도 1.7배, 제주도 40%, 대구광역시와 면적은 같고, 126개 부락에 인구는 4만 3천명, 농토는 전체면적의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곳으로 일본왕실에서 대마도주와 16세에 강제결혼을 시켜 조발성 치매로 살아온 비운의 여인 덕혜옹주.

고종의 셋째부인의 딸 덕혜옹주에 대한 애잔함과 비통함을 느껴, 봉축비 앞에서 상처의 비애를 품고 애절한 마음으로 조선의 응주를 기린다.

“가련한 그 님이 너무 애달아 향아리에 내 눈물이 콧 관여요.

보세요, 이것이 당신을 기리는 내 마음의 샘이요.” 이제야! 국력의 갈망이 우물을 찾아 샘솟듯 피어나니, 그 님은 꽃중의 꽃인 물 먹은 연꽃인양 맑은 미소를 짓는 것만 같다.

그 어떤 웅혼한 풍경도 시간을 넘어설 수 없고, 그 어떤 역사도 흘러간 시간을 초월할 수 없지만, 여행의 참된 흥분함은 먼 것들과 가까워 질 수 있다는 필연적인 참된 시간을 발견 해 본다.

아! 이제야, 대한의 태극을 그리며 비운의 응주를 기린다.

아! 조선은 떠나고 대한아 너는 있느냐, 아! 과시를 알고 현시와 미시의 길을 제대로 가는지.

최정규 시민기자



백제관

장흥한우 1+이상 돼지고기 오리고기

대표 이원두

학동선소상가상인연합회 회장



시민에 의한 상가 시민을 위한 상인

꽃등심 살치살 갈비살 안창살/토시살 차돌박이

대패삼겹살 생삼겹살 생목살 칼집삼겹살 가브리살 양념갈비

유향생오리 오리주물럭



여수시 시청동5길 15(학동) Tel. 061)682-2633 HP. 010-8968-1700





# 나눔 그리고 따뜻한 공존이 있는 사람



초대석

## 백수초밥 김경수 대표

한국사회에서 특히 지역사회에서 기부문화는 아직도 기업사회공헌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저 기업의 선한 이미지구축을 위해 이윤의 아주 적은 부분을 기부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기업' 이미지를 남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미지 마케팅에 익숙한 기부문화에 큰 기업이 아닌 지역의 작은 초밥식당, 그저 평범한 부부가 각각 1억원 씩 기부했던 통 큰 아나소 사이어티 회원이 있다.

다음은 백수초밥 김경수대표의 일문일답이다.

김경수 대표님도 일억 원 이상 기부, 사모님 차정례여사님도 일억 원 이상 기부, 즐기면서 기부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요. 기부를 어떤 형태로 하신 건가요?

>제가 9년 정도 매월 2백만원 씩 모 단체에 기부를 했고 그 외 기부를 시작한 것은 약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5년 이상을 꾸준히 일정 금액 기부를 하셨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 자신해보라는 횡집을 차려서 월세 2백만원씩을 내고 장사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건물을 사게 되었고 그래서 손님들 덕분에 집도 사고 장사도 잘되는 것이니 적지만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식당을 하다 보니 시간은 없고 그래서 몸으로 하는 봉사나 아닌 기부를 하는 봉사를 택했습니다.

>기부를 한 번씩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15년을 그것도 부부가 릴레이로 함께 하는 게 보통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차정례여사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 아내의 식당에서 일하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모임도 많지 않습니다. 어쩌다 모임에 나갈 때면 옷도 그냥 평범하게 입고 비싼 옷도 입지 않습니다. 생일에 좋은 옷 벌 사주려고 하면 자신은 싼 옷을 입어도 친구들이 어느 때이 커내면서 비싼 옷인 줄 안다면 그냥 웃는 사람입니다.

>자녀분들도 부모님의 선행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딸은 외국에서 공부 중이고 아들은 현재 요식업을 오픈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부모의 기부활동을 보고 자랐으니 마인드도 저절로 따라와 주는 것 같아요.

는 곳이 있고, 우리 지역 여러 단체에서 좋은 일 한다고 할 때 마다 함께 참여하여 작은 보탬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백수초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어보에 이어 백수초밥의 대박 성공 비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박의 비결은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님이 한 번 오셨다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신다면 두 번 다시 찾지 않겠지요. 고객 스스로 만족하셔서 제가 아무리 맛있다고 좋다고 해도 소용없잖아요.

운종일 고객이 만족하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와 직원들의 정성을 인정해주셔서 우리지역 손님뿐만 아니라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입소문이 났습니다. 감사한 일이

### 손님들 덕분에 집도 사고 장사도 잘되는 것, 사회에 환원해야 기부는 돈이 많은 부자만이 하는 특권 아니라 백수초밥 '맛있는 시간' 화려했던 속에 신선함

하지만 어릴 때는 엄마가 어쩌다 학교에 올 때 예쁘고 화려하게 오지 않는다고 투덜거릴 때도 있었답니다. 아내는 그 때도 식당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고 비싼 옷을 사 입을 돈이 있다면 기부를 했었던 거예요.

제 아내 차정례여사의 이해와 함께 가는 인생이 없었다면 저의 기부도 멈췄을 겁니다. 아내를 존경하고, 또한 이해를 해주고 이제는 함께 해주는 아들과 딸에게도 고마워요.

>정기적으로 매월 기부하시는 것 외에도 여러 곳에 기부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고향이 강진이라서 그 곳에 조손가정의 아이들 20명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있을 때마다 고향을 찾아가면 그 아이들에게 선물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1십만원, 2십만원씩 정기적으로 후원하

지요.

>제가 백수초밥을 먹어본 감상은 맛있는 시간입니다. 초밥에서 셰프의 깔끔한 솜씨와 화려함 속에 신선함이 느껴졌어요. 마지막 한 점까지 맛과 멋이 있었어요.

-백수 초밥의 주방은 전임수 셰프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63빌딩에서 일식당 근무하시던 분이 제가 특별히 모셔왔습니다.

음식은 일단 식자재가 신선하고 좋아야하고 그 다음은 만드는 사람의 솜씨와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있죠? '진료는 의사에겐 약은 약사에게!' 음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음식도 예술이고 전문적인 겁니다. 저는 백수초밥을 찾는 고객들께 일식 전문 셰프의 최고의 맛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김경수 대표님의 기부 활동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 어느 기관에 아이들이 입을 옷을 여러 벌 기부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 곳 원장님이 "현금으로 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중메이커 정도 되는 좋은 옷인데 제가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잠바 하나에 백만원 가까이 하는 비싼 고급 메이커를 저희 식구들은 입어보질 못해서 제가 뭘 모르는 걸까요? 그 원장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은 비싼 메이커만 입어서 입지 않으니 돈으로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때 사실 많이 당황했습니다.

현금기부만을 해왔던 지난 15년이 잠시 흔들렸으니까요.

이번에 우리 부부의 1억원 기부 약속 이행이 끝났으니 정말 소의 똬 곳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 문화 실현에는 소득과 행복지수, 기부에 대한 의식 등의 DNA가 따로 있다는 말도 있지 않아요.

-기부 유전자가 따로 있거나 하겠습니까? 기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십니다. 하지만 일부는 기부 방법을 몰라서 라고도 답변한다고 합니다.

기부할 의향이 있는 긍정적인 사람들도 많은 것이지요. 저와 아내의 기부 활동이 여수일보를 통해 알



려지면서 기부문화 확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인터뷰도 하게 되었습니다.

기부는 돈이 많은 부자만이 하는 특권이 아닙니다.

저는 나눔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장애인과 여수시민이 함께하는

# 제 3회 숲속 힐링 음악회

일시: 2019. 4. 4.(목) 13:00~14:30

장소: 무장애 나눔 숲 봉화산 산림욕장 (우천시 4. 8(일) 13:00-14:30)

주최: 사회복지법인 은현 여수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 충화밴드, ECO-PLUS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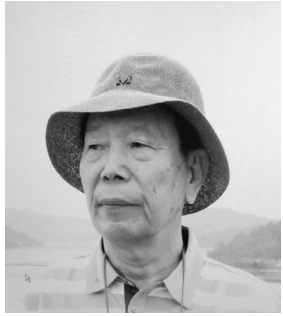
후원: 한국동서발전주 호남화력본부





# 혹여 동백꽃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 있다면...

## - <수필> 동백꽃 -



### 수필가 임 병 식

1989한국수필로 <천생연분>으로 등단. 여수문인협회지부장 역임, 한국수필작가회장 역임, 한국수필가 협회 공영이사 역임, 수필집 지난세월 한 허리를 외 다수

3월은 동백꽃의 계절이고 여수는 동백꽃의 고장이다. 여수에 사는 사람치고 동백나무와 동백꽃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혹여 동백꽃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음 소리를 연상하면 어떨까 싶다.

감나무에 매달린 감포개가 '뚝'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그 낙하음을 -.

만약 곱디고운 동백꽃이 별안간에 떨어지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본적이 없는 사람은 그러한 정황을 연상해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다. 혹자는 이렇듯 흥얼거리는 동백꽃을 두고 마지막까지 시들지 않고 몽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기에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서 추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어느 꽃보다 얼마나 결연하며 잠입한가.

동백꽃은 이른 봄에 꽃이 핀다. 수종은 실목교목으로 차나무과에 속하며 이파리는 두껍다. 수정은 이른 봄에 피는 만큼 벌과 나비가 역할을 못한 대신 동백새가 한다. 꿀을 내어주는 대신 녀석에게 수정을 의탁한다. 동백꽃은 매력적인 꽃이다. 매화만큼이나 고고하며 눈속에서도 꽃을 피워 청순한 기개를 보여준다.

내가 이런 동백꽃을 많이 보게 된 것은 여수에 와서이다. 이른 봄날 직장 따라 여수에 와서 보니 가장 인상적인 것이 동백꽃이었다. 시간을 내어 오동도를 들렀는데 아가지기한 동산이 온통 동백꽃의 천지였다. 절로 강한 인상이 박혀 버렸다.

그만큼 동백꽃은 여수를 상징하고 여수라면 어디서든 동백나무를 볼 수 있다. 개화시기도 한여름을 빼면 다양한 수종이 꽃을 피운다. 그러나 일부러 멀리 나가 발품 팔

지 않아도 시 외곽을 조금만 벗어나면 쉽게 동백꽃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동백꽃 중에는 오동도의 것이 일품이다. 여름 한철을 제외하고는 늘 꽃을 피우고 있어 찾아가면 언제나 반긴다. 나는 이런 동백 숲속이 좋아서 동백 숲을 거닐면서 자작시를 읊조리곤 한다.

오동도 동백꽃 붉은 동백꽃 / 지아비 그리다 떨어져 죽은 자리에 / 혼령으로 피어난 서러운 녀아 / 네 피어 난 뜻 그 누구들 모르랴 / 푸른 잎 붉은 입술 차마 보기 애처러워 / 보는 사람마다 고개 떨구누나 / 심심파적 삼아 흥얼거리는 노래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이 동백꽃은 슬픈 정설을 안고 있다. 마치 서양의 오페라 비련의 주인공 춘희(椿姬) 처럼 애달픈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옛날 옛적에 오동도에는 고기잡이 지아비와 한 아내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시신을 수습하여 바위틈에 무덤을 지어주었다. 그런데 웬 일인가. 눈이 수북이 쌓인 무덤에서 동백나무가 자라났고 그 주위에는 푸른 신우대가 자라났다.

어디까지나 전설이지만 애절한 사연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일까. 오동도 동백꽃은 해마다 유독 붉디 붉은 동백꽃이 피어났다. 마치,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여여씨 사랑 할까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는 잊을 수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지금

으로부터 4백여 년 전, 내세의 만남을 기약하며 죽은 남편의 관속에 자신의 머리를 잘라 머리를 삼아 넣었던 안동의 오래된 무덤에서 발견된 여인의 편지처럼 그렇게 오동도의 동백꽃도 죽은 여인의 혼령인양 해마다 애련하게 피어났다.

오동도의 동백꽃은 조금은 독특하다. 가령, 돌산 은적암(隱寂庵)의 동백이나 향일암의 꽃과는 달리 그 풍위가 우월하다. 은적암의 꽃이 꽃술이 다문다문 피어 은근한 구리움을 자극한다면, 향일암의 동백꽃이 인파가 북적거리는 가운데 피어선지 정숙한 맛이 없다. 하지만 오동도 동백꽃은 여간 순결히 보이지 않다. 꽃술은 영롱하고 이 산뜻하며 어떤 비장미를 보여준다.

결코 선운사 동백을 두고 서정주 시인이 "선운사 고풍으로 /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 막걸리 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 작년 것만 오히려 남았습니다.."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천박하게 입을 질게 화장한 그런 목로집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해풍을 맞고 피어선인지 청순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다.

해서 나는 종종 오동도를 찾는다. 피어있는 자태가 매력적이어서다. 나는 예전부터 동백꽃을 좋아했다. 그런 이유가 있다. 내륙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큰댁 마당에는 보기 드물게 수령이 백년도 넘은 동백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 동백나무는 겨울철만 되면 온 가지에 불을 켜듯 붉은 동백꽃이 피어났다. 그제 좋아서 유년 시절에는 나무 밑에 가서 이파리를 따 따지치를 하고, 떨어진 꽃송이를 주위 지푸라기에 꿸어서 인디안 무희처럼 목에 걸고 다

녘다. 그밖에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다. 결혼식을 올리는 초례청(醮禮廳)에는 오래 동백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꽃이 핀 것은 그대로 쓰고 아직 꽃이 안 피면 대신 조화를 매달았다. 그것을 아이들은 마지막 으로 집례자가 '신부님'을 외치면 그 꽃을 서로 가지려고 다투어 꺾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동백꽃을 생각하면 노래 어느 가사에 나오는 '꿈길 밖에 길이 없어 꿈길을 가니...' 하는 대목처럼 추억을 더듬어 동백꽃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서 이런 자작시를 읊조린다.



물빛도 고운 고장 동백의 고장 / 오동도 동백꽃은 붉기도 해라 / 터지는 꽃술에 서린 그 절개 / 오래도록 기억될 정절이여라 / 나그네 웃기 여미게 하는 정령이여라. 지금은 봄기운이 한창이다. 이때면 오동도는 온통 붉게 피어난 동백꽃으로 성찬을 펼친다. 추억거리가 그리운 사람, 아니 연인끼리나, 함께 살아 살가운 정이 그리운 사람은 한바퀴 와서 걸으면 좋을 것이다. 지금 오동도 동백꽃은 해풍에 맑게 얼굴을 씻고 찾아온 이를 반겨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2000년)

## <책소개> 시집 추천 김정현 시집 '귀가' 팔순에 유일 시집이라니!

1940년 전남 여수시 소리면 사곡리 진목 출생, 순천사범학교 졸업 후 교직에 근무 후 정년 퇴임 1968년 <성좌> 동인 활동으로 시작 1973년 한국일보에 <세수>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시작 활동 한평생을 교사로 아이들과 살아오신 분답게 맑고 순박하고 늘 푸른 긍정의 시선이다. 우직하면서도 투박하고, 투박하면서도 맛깔스런 한국전통 서정과 언어풍경이 배어있다.

봄나절 아내가 꽃아 놓은 화병에 개나리꽃 노오란 숨소리 뜨락에 서면 실버들 바람이 새싹 뽑아 올리는 소리 등나무 아래 초록빛 여운 봄이 솔처럼 뭍에 배이네 이번 시집에 실린 모든 시가 이 시 한편을 뿌리로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시인의 세월 가난한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윤회하는 새 하얀 세월, 곱게 세월이었다고, 탄진해버린 시간이었다고 자책하면서, 뒷마루에 앉아 가을햇살의 결을 읽는 시인의 삶은 적막을 지나 맑고 고요하기만 하다. 시인 신병은

### 귀가 歸家

동백에 가슴팍에 소주를 붙이고 나의 귀가 깊은 늦었다

문 열고 들어서면 내 아이 들어 식은땀에 젖어 자고 있다

머리맡 놓아 둔 밥상 수저 든 손길 사이로 흐르는 한숨같은 바람결

번 들뉘를 흔드는 우레소리 문득 달력을 보니 어느덧 임주가 지났다



## ◆ 특자의 글 / 여수소방서 평어119안전센터 승창근 나쁜 시기에 안전의식 소홀해지기 쉬워...

봄도 마음도 느슨해지는 봄철에는 나들이 하기에 좋은 계절이지만, 일상속에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봄에는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가 발생하면 큰 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화재를 주의하고, 외출 시 가스렌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집안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해야겠다.

또한, 생활 주변의 대형빌딩 특히, 노후 건축물 등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주위의 배수로가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 있지는 않은지, 절개지나 언덕 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없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 보아야 한다.

낮은 축대나 울벽 주위에 침하가 일어날 경우 가스배관이나 전기시설 등이 파손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시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특히, 공사현장 등의 근무자는 개인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지하주차 공사장에서는 추락방지 및 접근지 알람판이나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아울러, 봄철 산행 역시 안전장비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봄철 산속은 아직 냉기를 머금고 있어 특히, 낙엽 아래 완전히 마르기 전인 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가벼운 차림으로 산을 올랐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산행 이전에는 스트레칭을 하고 간단한 구급약이나 모자, 장갑 등을 챙기고 낙석의 위험도 있으므로 안전장비를 반드시 휴대해야 하며, 눈이 녹고 결빙이 생기는 시기인 요즘은 미끄럼으로 인한 낙상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은 회복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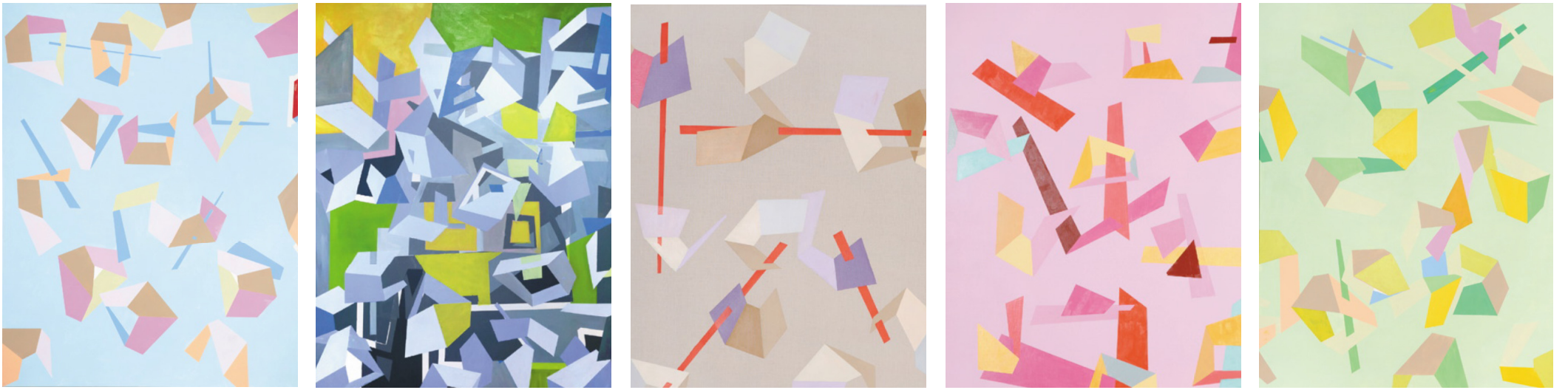
이제 추운 겨울이 물러나고 희망과 활기를 머금은 봄이 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무시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미리미리 준비하고 점검해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

여수일보 구독자 광고 문의 ☎ 061)654-8885 www.ysibtv.co.kr

<b>김용준</b> PARS   BAGUETTE 대표 김용준 010-411-4111 / 061-654-8885	<b>AGIA TOP10</b> 박세식 010-5452-6101	<b>댄스스포츠</b> 이수진 010-4651-5528	<b>재결합상</b> 대표 김미화 010-3906-8117
<b>SK telecom</b> 대표 김유수 010-490-3000	<b>LOTTE</b> 정혜수 010-5452-6101	<b>PHONAK</b> 포닉보청기 010-4651-5528	<b>리켓나자</b> 이연심 010-852-6888
<b>S-OIL</b> 여수소방 <b>장군 주유소</b> 대표 임성우 010-6616-3890	<b>건축사 사무소 미래</b> 대표/대표 수현호 010-491-8888	<b>행복한집</b> 노인요양시설 대표 이우근 010-491-8888	<b>외라미드 구동 황토방</b> 대표 이희정 010-854-1389





## 금보성작가의 춤추는 한글회화

문자가 살을 지닌 몸으로 거듭나는 세계를 펼치고 있어

한글회화를 구축한 금보성 작가 초대전이 3월28일 까지 여수미술관에서 전시중이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50회 전시기념으로 1월 인천 잇다스페이스와 2월 서울 금보성아트센터 그리고 3월은 고향 여수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작가는 "고향 여수는 심장 같아 늘 마음 설레고 꽃 일처럼 여린 곳이다. 바다와 섬을 드나드는 뱃고동 소릴 듣고서 문화의 길을 가려다 어린 스무 살에 열었던 첫 전시는 그 시절 유행했던 詩誦처럼 그림은 詩고 詩는 그림이었다" 고 말한다.

또한 뿌리가 문화이었기에 작가로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금보성 작가는 회화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장르와 재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철학과 문화이라는 사유 공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이번 금보성 작가의 고향 여수에서의 전시는 한글 자음과 모음의 적합한 배열의 재구성으로 문자가 살을 지닌 몸으로 거듭나는 세계를 펼치고 있어 지역 문화예술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최향란기자



### 금보성 작가

직지코리아국제페스티벌 조직위원회  
SNS아트페어 위원장  
재) 문화유산회복재단이사  
여수미술관 부관장  
금보성아트센터 관장

- 2009 올해의 인물
- 2011 독일 평론가상
- 2012 프랑스 국제전 은상
- 2012 샌프란시스코 국제전 금상
- 2013 한국현대미술대상/장관상
- 2013 대한민국문화예술인대상/CEO&저널
- 2013 고객감동브랜드대상/스포츠동아
- 2014 대한민국 이끄는 혁신리더대상 / 뉴스메이커
- 2014 대한민국인물대상
- 2015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자문위원장
- 2015 청주국제아트페어/청주공예비엔날레/특별상
- 2015 혁신한국인&파워코리아 대상/스포츠서울
- 2015 홍익대학교미술대학원현대미술최고위수료
- 2016 대한민국정대상&코리아파워리더대상/연합매일신문
- 2018 청주국제아트페어&청주공예비엔날레/특별상
- 2018 종교개혁 500주년 동문상 수상

**KOLON FASHION GGIO<sup>2</sup> 지오투**

정장/캐주얼/취업/입학/혼주예복 전문



# 지오투 여수점

663-1414

교동 롯데리아 앞

